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심 성월 · 삼위일체 대축일
제34권 29호(가해) 2014·6·15

[묵상]



삼위일체는
어려운 개념과
공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첫째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하느님!
둘째는, 인간이 되시어 인간을 열렬히 사랑하시다가
죽고 부활하신 하느님!
마지막으로, 인간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성령)!

성부, 성자, 성령!
분명 서로 다른 위격(位格)이지만,
한분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이 사랑자체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하느님은 아예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 공동체 삶을 통해서 - 본당 공동체

성호경을 그을 때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지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의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최보나 보나,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연)이경용 아교보, 이윤조 클라라, 이명자 로사, 한필훈,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재우 마티아, 전시웅 요한, 문태희 안젤라, 주용범 아브라함, 홍정숙 엘리사벳
낮미사	(생)조윤재 요셉, 안상훈 라파엘 & 안은지 마리아, 이정현 & 이경수 헬레나 가정, 김소연 프란체스카, 김여희 마리아나, 장혜수 미카엘라, 이정훈 안셀모 & 이희운 도미니카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4,4ㄱ-6.8-9

화답송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제 2독서 고린토 2서(2 Corinthians) 13,11-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요한(John) 3,16-18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03	105	105
봉헌	270	272	269
성체	291	306	287
파견	364	아빠의 청춘	311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15(15번에서 계속)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동정성과 모성을 결합하시어
상반되는 것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낙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왕국의 열쇠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복된 자들의 희망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16 천사들이 당신 강생의 고귀한 사건으로 놀랍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던 하느님께서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시는 한 인간
그분은 모든 이들로부터 환호를 듣습니다. 알렐루야.

17 유창한 웅변가들도,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 앞에선
물고기처럼 입을 열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이를 낳고도 동정으로 머물 수 있는지
설명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를 찬미합니다.
신앙으로 노래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지혜의 그릇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섭리의 보물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자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연설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동화를 지어내는 작가들의 지혜도
당신에게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테네인들의 그물은 찢어지고
어부들의 그물엔 물고기가 그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무지의 심연으로부터
이끌어 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대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이 생명의 항해자들에게 항구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Narcisse)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소년(美少年)이었던 그는 소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나르시스를 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코(Echo)'의 짝사랑에 응하지 않은 나르시스는 신(神)들의 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린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그곳에 있었지요. 나르시스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물가를 떠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잊고는 결국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것이 '자기애'(自己愛)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수선화랍니다. 나르시스가 죽은 이유는 결국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너'가 아니라 '나'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애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자리에 머물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완벽한 존재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불경스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완벽함에 도취(?)되어 계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바깥으로 끊임없이 발산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머물게 하십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르시스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허점투성이인 이 인간조차도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더 크게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 작은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붓고 계

십니다. 성부로 사랑하시고, 성자로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가 나르시스처럼 잘났다는 듯이 자기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너무 많고, 타인을 위한 시간은 아깝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듣고, 오직 내 방식, 나의 의견만이 옳은 것인양 타인을 몰아붙입니다.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사용할 때에도 어찌면 그렇게 나 위주로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만 완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완성의 길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이 외부로, 타인에게로 분출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더 크게 성장해서 자신에게 되돌아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해 줍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강귀석 신부 /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결혼의 변

서로가 결혼 후 달라졌다며 기념일 하나 잊은 것도 열정이 식은 탓이라 비약합니다. 열정이 우릴 활기차게 하지만 그도 계속되면 멀미가 나기 마련이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열정이 아니라 사랑의 도리입니다. 결혼 후 달라진 건 사람이 아닌 환경, 결혼은 생활인데 계속 연애를 하려는 까닭에 서로에 대한 실망을 쌓게 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치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동2,3반 요셉회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낙기 바오로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공지사항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Happy Father's Day ♥

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아버지날(Father's Day)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마다 않고 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과, 신부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강 및 시상식

- 주일학교 : 6월15일(주일) 학생미사 중 각 학년별 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수여. 미사후 수업있음
- 한국학교 : 6월15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우수학생들에게 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시상

◆ 본당 울뜨레아 6월모임 임시 변경

- 일시 : 오늘주일(15일) 오후 1시 1층 회의실(사무실앞)
- 안건 : 7월초 남가주남성꾸르실로 주말을 위한 준비사항 및 울뜨레아 피정, 단합대회
- 점심제공. 꾸르실리스타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요셉회 정기총회

- 일시 : 오늘 주일(15일) 낮미사후 강당
- 총회가 끝난후 친교장에서 BBQ 파티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부부동반 환영.

◆ 본당 감사 위촉

- 유철희 바오로 ● 김병태 요셉 ● 김충섭 마틴
- 위 세분의 형제님을 백삼위 성당 감사로 위촉합니다.
- 기간 : 2013년 10월~2015년 6월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서두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e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제34권 29호(가해) 예수 성심 성월 · 삼위일체 대축일 2014년 6월15일

-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 자모회주관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7월5일~8월23일(8주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
 - 신청 및 연락처 : 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펀라스티카☎(310)782-1025

◆ 성 골롬반 후원회 감사 미사

- 일시 : 6월26일(목) 오후 7시30분 성 아그네스 성당회관 6월28일(토) 오후 3시 한국 순교자 성당
- 문의 : 오토마스(626)421-9803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28일(주일)
- 장소 : 이스트LA칼리지(1301 Avenida Cesar Chaves Monterey Park, CA 91754)
- 강사 : 반병역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곡베뢰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213)369-0173
- 문의 : 김충섭 마틴 남가주 성령채신 봉사회 회장
- 후원 : 남가주사제협의회, 남가주평신도사도지협의회,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가톨릭 방송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5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갈비우거지국 \$3) * 주일학교(킨더가튼 피자)
- 6월22일(주일) : 하버 카슨 1반(우거지국밥 \$3) * 주일학교 : 방학(9월3일까지 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기정	김대우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상규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 옥	김원모	김영길	김 옥	김원모	김재희	남명자	남성철
김재희	김형순	남명자	남성철	노혜숙	민기남	노혜숙	민기남	박광자	박현주	소성덕	신대식
박광자	박상원	박현주	반정익	소성덕	신대식	안재만	원건희	유철희	이경수	이근모	이민상
신현화	안민수	안재만	엄영희	오명섭	원건희	이상곤	이상석	이은록	장영우	정규숙	정열모
유철희	윤 철	이경수	이근모	이민상	이상곤	주용순	최재영	황인중	한길선레		
이상석	이은록	이인두	이일길	이태옥	익 명						
장영우	정규숙	정열모	주용순	최재영	최희숙						
황인중	황철수	한길선레									
합계 : \$5,800						합계 : \$3,140					
주일미사 현금 : \$2,883						감사현금 : \$750(오영섭, 최수복, 익명) 한남마켓도네이션 : \$280					
주보 · 달력 광고후원 : \$1,200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은총시장
 - 일시 : 오늘주일(15일) 학생미사 이후 2층교실
 - 대상 : 유치부~6학년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동부 교무주임 ☎(310)780-8895
- ◆ FIAT리더십 트레이닝 피정에 주일학교교사 3명 참가
 - 6월19일(목)~22일(주일) 성 토마스성당
 - 참가교사 : 조세 박, 앤드류 남, 네니퍼 현
 -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등학교 교사,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중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오늘주일(15일) 방학전까지 마감
-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 오후 4시 성당 파킹랏~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수영복, 방한재킷, 주일헌금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중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213-675-0498 6/14(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01-6343 6/14(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3(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임순 데레사 780-3258 6/14(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6/15(주일) 플레이스리타캐년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6/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6/8(주일) 오후 2시 성당천교장
	2 박정탐 마르시아 634-6923	주이자 데레사 634-6923 6/13(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2 6/15(주일) 오후 5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유명련 마리아 365-0660 6/14(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갑열 데레사 533-7718 6/13(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강숙경 도미니카 617-3568 6/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2013~14년회기 마지막 사목회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 6월21일(셋째토요일) 미사 :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 *문의 : ☎(213)820-6535 김윤희수녀
-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
 - 주제 :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생애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6월27,28,29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 제2회 학생 성화미술대회 (남가주한인가톨릭미술가회)
 -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대상 :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 마감 : 6월1일~30일 *보낼곳 : 가톨릭신문사
 - 문의 : 가톨릭미술가회 ☎(818)667-2877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해외선교이야기

2013년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가 1조1,975억 달러로 세계 15위 일 때, 일본은 5조 72억으로 3위였습니다. 이렇다저렇다 말들이 많아도 확실히 일본은 현재 잘사는 나라, 선진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본으로 선교과전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일본이 무슨 선교지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 가는 것은 선교가 아닌 듯한 인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는 약 5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전체 신자 수는 겨우 45만 명 정도로 인구대비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9.5%가 교회 밖에 있는 선교의 불모지 상태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무엇인지, 사제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성당 신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있을 때(예비자 포함), 역시 많이 듣는 소리중 하나는 “결혼하셨습니까?”입니다. 분명 신부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서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다르기도 합니다. 서로 모르는 점도 많고요.

세례를 1년에 20~30명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본당은 전국적으로 세례자가 많은 본당으로 불린답니다. 몇 년간이나 세례자 없는 본당도 부지기수지요.

일본에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에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일본은 복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등 먼 나라에 선교지원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훌륭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신앙적으로 너무나 다른 나라인 일본에 대한 선교관심도 함께 일어났으면 합니다. 나라는 부자이지만, 교회는 가난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양금이 남아있는 나라이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루카 19,9)라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봅시다. 한 발 앞서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복음의 도움을 주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종안 신부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사제(도교)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현실은 많은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불의도 눈감아 주면서 살아가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식한 사람, 완고한 사람으로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고 싶은데 고지식하고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질문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자꾸 신앙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라고 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유에 넘어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성당 율타리 안에서만, 삶은 내 스타일대로’라는 슬로건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처럼 신앙과 생활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고, 삶과 함께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진리입니다. 꾸준히 믿고 있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고지식하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딱 막혔다고 싫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게 참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전례상식

성체만 영해도 미사에 참여한 것이 되나요?

☞ 하느님께서 성체 성혈뿐 아니라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때 성체 성혈만 받아 영하면 반쪽만 영하는 것이요, 말씀까지 받아 영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에 제대로 참여할 때, 우리는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와 초는 꼭 제대 위에 놓아야 하나요?

☞ 제대에 놓이는 십자가는,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땅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의 장소 중간 바닥에 세우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미사 때 제대에 놓이는 초(촛대)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하여 흠숭과 축제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 위의 전례 용구들이 잘 보이도록 배려하면서 제대 가까운 곳의 바닥에 세워도 무방합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